

# 행복한 **책** 읽기

김인숙 '소현' (자음과 모음 권)

패망의 역사는 남부하다. 병자년, 패전한 조선은 세자 '소현'을 승전국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야 했다. 인조 임금의 흐린 시야에 부국강병의 소망은 사라지고 감내해야 할 굴욕만이 누더기처럼 나부꼈다.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쓰지 말자, 도륙당한 나라의 처참한 몰골 앞에서 민족의 여망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형국이었다.

'소현'은 적국에 인질로 잡혀갔던 세자의 마지막 2년을 다룬 소설이다. 그간 선입견으로 바라왔던 작가 김인숙이 아니었다. '말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매료된 뒤 잠시도 진정되지 않았다. '남한산성' 김훈의 문체가 부럽지 않은 내공이 작가에게 번득었다.

책 표지에 용포를 입은 사내의 반쪽 얼굴이 보인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가여운 눈빛, 할 말 많은



서도 아들을 살려줄 수 없는 정치적 이유를 뿌리치지 못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 아들의 울음만큼 아버지의 울음도 깊었다. 세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용렬한 왕이자,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내치고 만 패륜의 아버였다.

소현은 왕이 되지 못했다. 훗날의 사도세자처럼, 비정한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뺏긴 왕자로 기억될 뿐이다. 성공한 자보다 실패한 자, 왕이 되어 권력을 누리는 자보다 왕이 되지 못한 채 비참하게

## 삼키는 울음이 더 아프다

세자 소현이라라. 심양에 당도한 처음에는 오랑캐의 뜻을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에 동화되어 갔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은, 하라는 것만 허락된 감옥이었다. 소리는 죽어 가라앉았고 생채기는 안으로 삭여 들어갔다.

날마다 압록을 건너는 꿈을 꿔지만 감을 넘어 조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강을 건너 적국에 잡혀 오는지를 분간하지 못했다. 울음마저 허락되지 않는 삶, 울음이 녹아 문드러져 버린 목덜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아버지의 나라가 장차 자신의 나라가 될 터인데, 소현은 위축되었다. 명의 멸망을 목도하고 청에 의해 청의 편이 되어버린 세자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한때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던 인조는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도 뺏긴 폐국의 왕이었다. 그러면

죽어간 자에게 소설가의 관심은 꽃길 수밖에 없다.

천하를 가질 수도 있었던 한 인간의 고독을 들여다본 것으로 작가는 자신의 할 일을 마쳐버린다. 소설이 끝난 후 에필로그 격인 '작가의 말'을 통해, 소현의 죽음을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고자 했다. 인물을 미화하는 영웅담일랑 거두고 전란의 참혹함과 상처 입은 나라를 어루만지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 봉림과 추악한 권력투쟁 같은 건 결코 벌이지 않았다. 울음으로 대신하는 우애가 애절하다.

역사의 진리는 사실의 여부보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소설을 읽고 편향과 왜곡을 따질 필요는 없다. 작가가 주목한 것은 세자의 죽음이 아닌 세자의 삶이었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암투, 숨 막히는 사건 전개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비운의 세자가 죽어간 사이에 역사는 숨죽여 울었고 또 한 번 멍들었다. 통곡하는 울음보다 소리 없는 울음이 더 아프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지난해 7월 소쇄원에서 진행된 '선비들의 여름나기' 프로그램 중 '성산계류탁월도·소쇄원 48경' 재연 모습.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Guangju Cultural Foundation **광주문화재단** 13일 '무등산 여름축제' 충효동·환벽당 일대

## 옛 선비들의 여름나기 옛보고 충효동 주민과 복달임 음식 나눠요

'옛 선비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 무등산의 아름다움 풍광 속에서 여름나기 하는 선비들을 만나는 시간여행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로 돌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북구 충효동과 환벽당 일대에서 문화관광상설프로그램 '무등산 여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성산계류탁월도(星山溪柳瀟瀟圖) 재연행사와 함께 충효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장터가 더해져 왁자지껄한 시민축제로 진행된다. 마침 행사가 열리는 날은 초복이라 주민들이 마련한 복달임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성산계류탁월도 '선비들의 여름나기' 재연행사는 놀이패 신명과 충효동 주민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16세기 말 선비들의 일상을 재해석해 생생하게 재연한다.

지난 2011년 10월, 2012년 7월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성산계류탁월도는 1590년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을 중심으로 시단을 형성했던 김성현, 김부륜, 양자정, 최경희 등 선비 11명이 복날 더위를 씻으며 시회(詩會)를 즐기는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행사는 환벽당 정자 아래서 선비들이 행했던 문화와 학문, 소통 전반을 그대로 되살려낸다. 여름날 송강 정철이 먹을 감았다는 용소에서 선비들이 둘러앉아 복달임 음식을 먹고 시회를 하며, 맑은 물에 탁족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재연행사가 끝난 후에는 주민 김용수(86)옹이 충효동에서 나온 자란 충장공 김덕령 장군(1567~1596) 복장으로 말을 타고 출현, 환벽당에서 광주호 호수생태원 특설무대까지 관광객들의 동선을 이끌어 줄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충효동 주민들이 직접 행사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충효역사마을발전협의회는 행사 전체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된 왕버들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연다.

부대행사로 도예공방에서 만든 생활자기와 농산물 경매시장이 열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마을 수호신인 왕버들나무에 두른 금줄에 가장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원 성취문 달기 등이 열린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무대에서는 내드림의 진도복춤, 오목대의 대금, 이재자 선생의 민요 등 다양한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5시에는 가야금 병창, 통기타, 한국무용, 노래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왕버들 음악회'가 이어진다. 문의 062-670-745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스페인 음악에 취하다

피아니스트 조현영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작렬하는 태양, 심장을 움직이는 강렬한 음악.

피아니스트 조현영(사진)씨가 여름날과 꼭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준비했다.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열정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주회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작곡가들의 곡들로 레퍼토리를 꾸렸다.

조씨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말년에 스페인에 머물며 많은 곡을 작곡한 스페인 작곡가 '아르헨티나 춤곡',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을 들려준다.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흥연, 첼



리스트 김재준과 함께 연주한다. 전남대 출신으로 필름 국립음대 석사,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 전문가 과정을 마쳤다. 광주피아노 아카데미, 피아노노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영화제

스태프 모집

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4회 광주여성영화제'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팀과 운영팀, 홍보팀, 자원활동가팀, 기술팀 등 5개 부문으로 여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영화 관련 경력자나 영화제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cafe.daum.net/wff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430-6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예술 꿈나무들의 음악회

금호주니어콘서트 3명, 12~13일 금호아트홀

'클래식 영재들을 만나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은 12일, 13일 이틀간 예술 꿈나무들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12일 오후 7시 30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진행하는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 2012년 우승자들이 결성한 트리오가 공연을 펼친다. 주인공은 피아노 정규빈, 바이올린 서유민, 첼로 오혜린. 레퍼토리는 하이든 '피아노 삼중주 집시 트리오' 드보르작 '피아노 삼중주 돌키'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1번'이다.

광주금호아트홀이 지역 영재 발굴을 위해 4회째 진행하고 있는 금호주



김승희



은혜인



박소리

니어 콘서트 오디션 출신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13일 오후 3시 열리는 콘서트에는 2010년 제1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3명이 공연을 갖는다.

연주자는 피아노 김승희, 바이올린 박소리, 플루트 은혜인 양으로 세 명 모두 현재 예원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 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신양파크호텔!!**  
고품격 웨딩의 메카

**Shin Yang Cool Wedding**

그 누구보다 특별한 당신, 영원히 기억될 웨딩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할인 **7~8월 웨딩 확정시** 뷔페 ₩ 33,000 ~ 스테이크 ₩ 38,500 ~

"신양의 웨딩 인연은 평생을 회원으로 이어갑니다"

- 신양 헤니문 카드 특전 -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시 40% DC,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